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조 영 주[†]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미혼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지각의 정확성), 얼마나 긍정 편향 혹은 부정 편향되게 지각하는지(지향성 편향), 또 파트너의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각자의 동일한 의사소통 양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지각의 유사성 편향)를 진실과 편향 모형(Truth and Bias Model; West & Kenny, 2011)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철회 의사소통,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와 성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혼 커플에게서 수집한 197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고, SPSS 18의 혼합모형(Mixed Mod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과 철회를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은 유의하였다. 둘째,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는 남녀 모두 긍정 편향이 나타났고,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는 여성이 남성의 철회를 지각할 때만 긍정 편향이 나타났다. 셋째, 남녀 모두 비난 및 철회에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유의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의 철회 및 비난을 각각 조절변인으로 포함했을 때,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여전히 유의하였고, 여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남성의 비난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교제기간은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철회에서의 긍정 편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의 정확성이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의의, 상담 실재에 대한 함의,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비난, 철회, 의사소통,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진실과 편향 모형, 미혼 커플, 성차, 교제기간

[†] 교신저자 : 조영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대우교수,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 youngju.chona@gmail.com

“당신이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철회하고, 내가 철회하기 때문에 당신이 비난한다” (Johnson, 2004, p. 16).

Johnson(2004)은 커플의 행동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한 사람이 철회하면 다른 한 사람은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난하고, 이로 인하여 철회자가 더 철회하는 상호작용이 커플의 전형적인 불화 관계라고 하였다.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임상적으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이다(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Schrodt, Witt, & Shimkowski, 2014). 커플의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을 하나의 패턴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은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커플의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Baucom, Atkins, Eldridge, McFarland, Sevier, & Christensen, 2011; Schrodt, et al., 2014; Siffert & Schwarz, 2010). 커플의 의사소통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자기 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일치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ristensen et al., 2006; Siffert & Schwarz, 2010).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지각의 정확성: perceptual accuracy), 얼마나 긍정/부정 편향되어 지각하는지(지향성 편향: directional bias), 또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얼마나

편향되어 지각하는지(지각의 유사성 편향: perceptual similarity bias)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실과 편향 모형(Truth & Bias Model: T&B 모형; West & Kenny, 2011)을 적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들 관계에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철회,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각자의 비난 및 철회가 상대방의 비난이나 철회를 지각하는데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비난-철회 의사소통을 하나의 패턴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파트너의 비난의 지각에서 지각자의 철회를 독립변인으로, 파트너의 철회의 지각에서 지각자의 비난을 독립변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B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각자의 비난 및 철회를 조절변인으로 두고 파트너의 자기보고 의사소통(실제 변인)과 자기 자신의 동일한 의사소통(유사성 편향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편향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에서 성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대개 여성은 요구/비난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또 남성은 철회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mbad, Donnellan, Klump, & Burt, 2011). 파트너에 대한 지각과 관련한 성차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Fletcher & Kerr, 2010; Thomas & Fletcher,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파트너에 대한 지각에서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Decuyper, De Bolle, & De Fruyt, 2012; Letzring, Well & Funder, 2006; Fletcher & Kerr, 2010). 본 연구에

서는 미혼커플에게서는 교체기간이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혼 커플은 부부에 비해서 관계에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또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관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조영주, 2017; Swann, De La Ronde, & Hixon, 1994). 이와 같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미혼 커플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비난 의사소통은 파트너를 비난하며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 의사소통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고 파트너의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고 상호작용에서 철회하는 양식을 말한다(Christensen, 1988; Eldridge & Christensen, 2002; Gottman & Silver, 2002).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임상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졌다(Schrodt, et al., 2014; Heavey, et al., 1993)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Johnson의 정서중심치료, Gottman의 부부치료, 그리고 이를 통합한 통합 커플치료 모형(Integrated Couple Therapy Model)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악순환을 평가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David, 2005; Gottman & Silver, 2002; Johnson, 2004). 구체적으로 Johnson(2004)은 비난-비난, 비난-철회, 및 철회-철회와 같은 부정적인 상호 작용의 악순환 속에 있는 커플이 커플 치료를 통하여 자신과 파트너의 애착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수용함으로써,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효과

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Gottman은 커플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의사소통 양식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 요소를 의사소통 악화요인으로 명명하였다(David, 2005; Gottman & Silver, 2002).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임상적 관심에 더하여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경험적으로도 연구되었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은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하였고, 이 중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관계의 질을 가장 저해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요구-철회의 의사소통 패턴은 한 사람은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대화에서 철회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말한다(Christensen, Eldridge, Catta-Preta, Lim, & Samtagata, 2006). 엄밀히 말하자면 요구 의사소통은 요구와 비난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합하여 요구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hnson(2004)이나 Gottman 등(Gottman & Levinson, 1986; Gottman & Silver, 2002)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비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난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며 요구 및 비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요구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를 개관하였다.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관계적 특성이나 개인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관계적 특성은 관계만족이나 관계 갈등을 포함하며, 개

인 내적 요인은 개인의 성인애착, 가치관, 관계에 대한 신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포함한다(김민성, 신희천, 2011; 이정은, 이영호, 2000; 이종선, 권정혜, 2002; 이희운, 조유현, 2015; 장문선, 김영환, 2012, 2013; 황민혜, 고재홍, 2010). Schrodt 등(2014)은 Christensen(1987)의 연구 이후 약 25년 간의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74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의 요인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다섯 가지 요인은 (㉠)관계 만족이나 결혼 적응과 같은 관계적 요인,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안녕 요인, (㉢)성격 요인이나 애착 유형과 같은 성격 요인, (㉣)성별, 성역할 및 수입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대화 만족, 대화 유연성 및 갈등 해결과 같은 의사소통 요인을 포함한다. 메타 분석 결과,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은 인구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비해서 관계 요인 및 의사소통 요인과 더 큰 관련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효과크기는 일반 집단에 비해서 임상집단이나 불화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과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성차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요구/비난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성은 철회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Humbad, et al., 2011).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 사회화의 차이, 생리적 차이, 사회적 권력 차이 그리고 갈등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Caughlin & Scott, 2010; Schrodt, et al., 2014). 성역할 사회화 관점에 따르면,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도록 사회화되며, 남성은 자율적이며 과제 중심으로 사회화된다.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에게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요구자가 되고 남성은 철회자가 된다는 것이다(Schrodt, et al., 2014). 생리적 차이의 관점에서 Gottman과 Levenson(1986)은 갈등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리적으로 더 각성되므로 이러한 각성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남성은 갈등 상황에서 피하는 철회자가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구조 이론(Social Structural Theory)에서는 성차를 사회적 권력의 차이로 보았는데, 대개 권력이 약한 여성은 변화를 요구하고 권력을 가진 남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회한다는 것이다(Caughlin & Scott, 2010; Christensen & Heavey, 1990). 마지막으로, 갈등 구조 관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갈등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요구자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논의를 피하는 철회자가 달라진다고 보았다(Holly, 2010; McGinn, McFarland, & Christensen, 2009).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을 하나의 패턴으로 두고 연구하였다. 즉, 커플 내에서 한 사람이 요구하거나 비난하면 다른 한사람은 철회하고, 이에 대해 요구자는 더 비난하거나 요구하게 되고, 다시 철회자는 더 철회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요구/비난-철회 패턴을 커플 수준의 현상으로 보았다(Christensen, 1987, 1988). 몇몇 연구자들은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 연구뿐만 아니라 요구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Baucom, et al., 2011; Schrodt, et al., 2014; Siffert & Schwarz, 2010). 이렇게 함으로써 커플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Siffert & Schwarz, 2010), 요구/비

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Schrodt, et al., 2014), 개인 내의 요구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 간의 상관이나 이들 관계에서 성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Baucom, et al., 2011).

구체적으로 Vogel과 Karney(2002)는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에서는 한 사람의 비난 및 요구 의사소통이 많아질수록 다른 한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관찰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각 배우자의 요구 행동 간에 또 철회 행동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다. 즉,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커플은 요구/비난-철회 행동 패턴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만족감을 느끼는 커플은 두 사람이 모두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요구 및 철회 행동에서 파트너 간 상관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Klinetob과 Smith(1996)는 배우자 간의 요구/비난 행동과 철회 의사소통의 관계를 타임 시리즈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어떤 커플은 사람이 비난하거나 요구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철회하고, 한 사람이 철회하면 다른 한 사람은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을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에서 제안하는 상호작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커플의 경우는 요구/비난 및 철회 행동이 파트너의 행동과는 관련 없이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커플의 경우는 한 배우자만 영향을 받기도 했다. Siffert와 Schwarz(2010)는 부부의 요구 및 철회 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과 함께 요구 행동과 철회 행동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들의 연구 결과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에 비

해서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커플 내 한 사람의 요구/비난과 다른 한 사람의 철회 간에 상관성이 있었고, 한 사람 내의 요구와 철회 간에도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aughlin과 Vagelisti(1999)도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이 모두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의 패턴과 함께 이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커플의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측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은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Christensen과 Sullaway(1984)이 개발한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의 요구-철회 하위척도인데, 커플은 각각 자기요구/비난-파트너 철회와 파트너 요구/비난-자기 철회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성 커플인 경우에 여성의 자기요구/비난-파트너 철회와 남성의 파트너 요구/비난-자기 철회를 합하여 여성요구/비난-남성철회 점수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 때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양식에 대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의 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합산되는 제한점을 가진다. Christensen 등(2006)의 연구에서 여성요구-남성철회의 파트너 간 상관은 .45, 남성요구-여성철회의 파트너 간 상관은 .58로 이들 간의 일치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iffert와 Schwarz(2010)는 요구 및 철회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스타일척도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ventory; Kurdek, 1994)의 하위요인 중에서 부정, 호전성 및 공격성을 측정하는 갈등 관여 요인과 철회 요인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자기보고와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은 .44에서 .57로 일치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연구에서 자기 보고와 파트너의 지각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를 정확하게 지각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너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지각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향되어 지각하기도 한다(Fletcher & Kerr, 2010; Murray, Holmes, Bellavia, Griffin, & Dolderman, 2002; West & Kenny, 2011). West와 Kenny(2011)는 이러한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포함한 T&B 모형을 제안하였다. T&B 모형은 커플 관계에서 자기와 파트너의 특성이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Kashy, & Cook, 2006)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West & Kenny, 2011).

지각의 정확성은 실제에 근거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관찰자의 평정이나 행동하는 사람의 자기보고를 실제의 기준으로 보았다. 대개는 이러한 실제 변인과 실제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을 지각의 정확성으로 본다(Fletcher & Kerr, 2010; West & Kenny, 2011). 선행 연구에서 지각의 정확성을 지각의 형태 정확성과 지

각의 수준 정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였다(조영주, 2017; Decuyper, et al., 2012). 지각의 형태 정확성은 실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을 말하며, 지각의 수준 정확성은 둘 간의 차이를 말한다(조영주, 2017; Decuyp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T&B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실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을 지각의 정확성으로, 실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의 차이를 지향성 편향으로 구분하였다. Fletcher & Kerr(2010)는 메타분석에서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는데, 공격성이나 비난과 같이 부정적인 태도, 신념, 행동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크기는 .51이었으며, 사랑이나 용서와 같은 긍정적 태도, 신념, 행동의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 크기는 .40라고 보고하였다.

지각의 편향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데, West와 Kenny(2011)는 지향성 편향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포함한 두 가지 형태의 편향을 제안하였다. 지향성 편향은 실제 보고에 비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서 지각하는 것으로 지각의 정확성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즉, 한 사람의 자기 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과 별개로, 파트너에 대한 지각은 파트너의 자기 보고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유의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Fletcher와 Kerr(2010)에 의하면 지각되는 파트너의 특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긍정 편향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 편향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파트너의 성격 특성, 파트너의 의도나 정서 상태의 인식, 과거 사건이나 관계에 대한 기억,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예측에서는 긍정 편향이 일어나는 반면, 파트너의 신념, 태도 및 행

동과 같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질에서는 부정 편향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들은 파트너의 성격적 특질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때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는 반면,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질인 파트너의 용서나 비난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관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상호작용 특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때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덜 민감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질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Overall, Fletcher와 Kenny(2012)는 실험 연구에서 커플 중 한 사람이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변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파트너를 배려한 정도를 평정하고,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파트너의 배려에 대한 지각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화자가 배려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서 청자가 파트너의 배려를 더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의 편향 중 다른 하나인 지각의 유사성 편향(Decuyper, et al., 2012)은 파트너의 특질을 지각할 때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특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각이 편향되는 것을 말한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특성을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파트너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West와 Kenny(2011)는 이를 편향 변인이라고 하였다. 파트너를 자신과 유사하게 지각함으로써, 지각하는 사람은 이해받는다라고 느끼고 파트너와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된다(Murray et al., 2002).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지각의 정확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을 가진다. 한편으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높을 때 파트너를

부정확하게 지각함으로써 지각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지각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실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각의 정확성을 높여 파트너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Kenny & Acitelli, 2001; West & Kenny, 2011).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에서 성별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성별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지만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Thomas와 Fletcher(2003)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 되고 관계나 심리 내적인 면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파트너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Hall(1984)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각의 정확성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 파트너를 정확하게 지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상쇄시킴으로써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Fletcher와 Kerr(2010)도 메타 분석을 통하여 성별에 따라 지각의 정확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지각의 정확성은 지각 능력 보다는 동기와 관련이 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는 남녀가 유사하다고 하였다. 지향성 편향과 관련해서 Fletcher와 Kerr(2010)는 상호작용 특질에서 여성에게서 부정 편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여성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파트너의 자기보고에 비해서 파트너의 특질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각의 정확성 및 편향에서 교제 기간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교제 기간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파트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각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지향성 편향이나 투사로 인한 지각의 유사성은 편향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Decuyper, et al., 2012; Letzring, et al., 2006). Gagné와 Lydon(2003)은 남성은 관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관계를 맺는 반면 관계 중심적인 여성은 초기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관계 초기에 긍정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Fletcher와 Kerr(2010)도 관계 초기의 열정적 사랑의 단계에서는 파트너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동반자적 사랑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그들의 연구에서는 교제기간은 지각의 정확성 및 지향성 편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각의 정확성은 교제 기간 보다는 헤어진다거나 동거를 시작한다거나 혹은 결혼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주요한 관계의 변화 시기에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과 관련하여 성별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A-B)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성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의 정확성**: A의 자기보고 비난이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비난이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A의 자기보고 철회가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철회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지향성 편향**: A의 자기보고 비난 및 철회에 비해서 B가 지각한 A의 비난 및 철회가 각각 높게 나타나, 부정 편향의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지각의 유사성 편향**: B의 자기보고 비난이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비난이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B의 자기보고 철회가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철회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비난-철회 조절효과**: B의 철회는 B가 A의 비난을 지각할 때 보이는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B의 비난은 B가 A의 철회를 지각할 때 보이는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5.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교제기간은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6. **성별의 조절효과**: 성별은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트 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¹⁾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각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 자료는 임의 표집 하였는데, 설문 조사자²⁾가 자신이 속한 학교, 직장 및 교회 등의 집단에서 미혼 커플에게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지인을 통하여 그들 주변의 미혼 커플에게 설문을 배포, 수거하는 일종의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설문 참가자에게 제공한 설문 봉투에는 두 개의 설문지, 설문 동의서와 보상으로 수첩 두개를 포함하였다. 두 개의 설문지에는 커플 인식을 위하여 동일한 코드 번호를 미리 기입하였고, 설문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조사 시 주의 사항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커플 중의 한 사람이 설문 봉투를 받아서 동의서, 설문지와 보상 수첩 중 각각 하나를 파트너에게 주도록 하였다. 커플이 각각 설문에 응답한 다음, 작성한 설문지를 각각 설문 조사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설문 봉투를 받은 사람이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였다. 거리상의 문제로 지필 설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설문 주소를 알려 주고 온라인 상(<https://ko.surveymonkey.com>)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 1) 전체 설문 자료 중 일부는 김미정, 조영주(2017)와 조영주(2017)에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 2)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한 김미정에게 감사드린다.

성실하게 응답한 200쌍의 미혼커플의 자료 중에서,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Tabachnick & Fidell, 2007) 확인한 3쌍의 극단치를 제외하였고($\chi^2(8)=26.13, p<.001$), 197쌍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남성의 나이는 평균이 26.50세(표준편차=4.62)였고, 여성의 나이는 평균 24.99세(표준편차=4.13)였고, 교제 기간은 평균 20.87개월(표준편차=23.95)이었다. 최종 학력별로, 남성은 고졸이 11명(5.6%), 대학생이 70명(35.5%), 대졸이 105명(53.3%), 대학원 이상이 11명(5.6%)이었고, 여성은 고졸이 12명(6.1%), 대학생이 60명(30.8%), 대졸이 97명(49.0%), 대학원 이상이 28명(14.1%)이었다. 직업별로 남성은 직장인이 103명(52.2%), 대학(원)생이 73명(37.1%), 무직이 7명(3.6%), 기타가 12명(6.1%), 무응답이 2명(1.0%)이었고, 여성은 직장인이 94명(47.7%), 대학(원)생이 72명(36.5%), 무직이 10명(5.1%), 기타가 21명(10.7%)이었다.

측정도구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의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권윤아와 김득성(2008)이 개발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를 미혼 성인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비난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철회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냉담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비난은 파트너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예를 들면,

‘파트너에게 ‘당신은 항상, 또 문제’ 라는 식으로 말한다), 냉담은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파트너에게 집중하지 않는 태도이다(예를 들면,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는 갈등이 있을 때,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상대 파트너에게 했는지를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비난과 냉담은 각각 5문항과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파트너가 얼마나 했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가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권윤아와 김득성(2008)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비난 및 냉담이 각각 .85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 보고 비난 및 냉담이 .84와 .84였고,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및 냉담은 .83과 .77이었다.

분석방법

사전분석에서는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지각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에 관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West와 Kenny(2001)의 T&B 모형을 적용하였다. T&B 모형은 커플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한 형태이다(West & Kenny, 2011). 커플의 자료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할 때 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사용하는데(Kenn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커플의 구성원을 커플이라는 집단에 내재된 개인으로 보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층모형은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며(Kenny, et al., 2006), 하나의 모형 안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향성 편향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West & Kenny, 2011),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층모형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Kenny 등(2006)이 제안한 프로그램 중 SPSS 18의 혼합모형(Mixed Model) 절차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하나의 커플이 동일한 고유번호를 가진 개인별 자료로 전환하였고, 실제 변인(파트너의 자기보고), 유사성 편향 변인 및 파트너에 대한 지각은 모두 실제 변인 값의 평균으로 평균 중심화하였다(West & Kenny, 2001). 이에 더하여,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의 추정치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성차 검증을 위한 명령문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다층모형 분석은 직접 지각의 정확성과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상수는 지향성 편향을, 실제 변인의 추정치는 직접 지각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유사성 편향 변인의 추정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나타낸다.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유사성 편향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실제 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첫 번째 혼합모형 분석에서 유사성 편향 변인의 지각된 변인에 대한 추정치와 회귀분석에서 실제 변인의 유사성 편향 변인에 대한 회귀 계수를 곱한 값이 간접 지각의 정확성이 된다. 이 때 간접 지각의 정확성의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중속변인이 비난일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중속변인이 철회일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번째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절변인, 실제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항 및 유사성 편향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두 개의 조절변인을 포함하였는데, 첫 번째 조절변인으로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를,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을 포함하였고, 두 번째 조절변인으로는 교제기간을 포함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하였다(서영석, 2010; Frazier, Tix, & Barron, 1986). 중속변인에 대한 조절변인, 정확성 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및 유사성 편향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의 추정치는 각각 조절변인이 지향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얼마나 조절하는지를 의미한다(Overall, et al., 2012; West & Kenny, 2011).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조절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Preacher, Curran과 Bauer(2006)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조절변인이 각각 ± 1 표준편차일 때 회귀식의 기울기와 기울기의 유의도를 산출하였다.

결 과

사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교제기간을 제외한 주요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의 범위가 .09에서 .74(표준오차=.17)로 2이하였고, 첨도의 절대값의 범위는 .13에서 1.00(표준오차=.35)으로 7이하였기 때문에, 연구 자료의 분포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West, Finch, & Curran, 1995). 교제기간은 왜도는 3.28, 첨도가 14.49였고, 이를 정상분포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제곱근 변환을 하였다. 제곱근 변환 후에는 왜도와 첨도가 각각 1.19와 2.64였고, 분석에서는 교제기간의 변환값을 사용하였다.

표 1에는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교제기간은 남성의 철회, 여성의 비난 및 철회와 남녀가 지각한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p < .05$). 남성의 비난은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비난 및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비난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 = .48, p < .001$; $r = .59, p < .001$). 남성의 철회도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철회 및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철회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 = .46, p < .001$; $r = .37, p < .001$). 여성의 비난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비난 및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비난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r = .52, p < .001$; $r = .34, p < .001$), 여성의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교제기간 자기보고	-								
2.남성 비난	.25***	-							
3.남성 철회	.11	.42***	-						
4.여성 비난	.15*	.32***	.36***	-					
5.여성 철회	.17*	.26***	.03	.40***	-				
파트너 지각									
6.남성지각 여성비난	.23**	.59***	.53***	.52***	.22**	-			
7.남성지각 여성철회	.24**	.65***	.37***	.28***	.39***	.57***	-		
8.여성지각 남성비난	.25***	.48***	.14	.34***	.39***	.34***	.36***	-	
9.여성지각 남성철회	.26***	.30***	.46***	.54***	.19*	.41***	.15*	.52***	-
평균	4.04	2.25	2.01	2.39	2.40	1.95	2.11	2.02	2.02
표준편차	2.13	.95	.87	.91	.86	.82	1.03	.93	.93
왜도	1.19	.38	.62	.09	.41	.55	.72	.68	.74
첨도	2.64	-.63	-.13	-1.00	-.27	-.49	-.29	-.46	-.15

주. N=197. 교제기간은 변환값임. * $p < .05$, ** $p < .01$, *** $p < .001$.

철회도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철회 및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철회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 = .39, p < .001$; $r = .19, p < .05$). 남성의 비난은 여성의 비난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면 ($r = .32, p < .001$), 남성의 철회는 여성의 철회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3, p > .05$).

주요 분석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혼합모형 분석 기법을 사용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정치는 표 2의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지향성 편향은 남녀 모두 부적(음)으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더 낮게 지각하는 긍정 편향(음)으로 나타났고(남지각: 추정치=-.36,

$t = -8.37, p < .001$; 여지각: 추정치=-.29, $t = -5.01, p < .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 = 1.04, p > .05$).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 지각의 정확성도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남지각: 추정치=.33, $t = 6.61, p < .001$; 여지각: 추정치=.40, $t = 6.34, p < .001$),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 = .91, p > .05$).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투사하여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도 남녀 모두

3) 본 연구에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부적(음)인 지향성 편향은 파트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긍정 편향으로, 통계적으로 정적(+인 지향성 편향은 부정 편향으로 해석하였다. 통계적 기술과 해석의 구분을 위하여 통계적 기술에서는 '부적' 혹은 '정적'으로 표기하였고, 해석에서는 각각 '긍정 편향' 혹은 '부정 편향'으로 표기하였다.

유의하였고(남지각: 추정치=.41, $t=8.59$, $p<.001$; 여지각: 추정치=.21, $t=3.24$, $p<.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2.42$, $p<.05$).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도 유의하였다. 남성이 여성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14 ($.33*.41$, Sobel's $z=4.08$, $p<.001$)로 전체 정확성의 25.5%였고,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에 대한 여성의 지각의 정확성에서 여성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07 ($.31*.21$, Sobel's $z=2.65$, $p<.01$)로 전체 정확성의 14.9%였다.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향

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는 표 2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은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 보이는 긍정 편향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지각하는 사람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고(남지각: 추정치=.24, $t=4.40$, $p<.001$; 여지각: 추정치=.27, $t=3.72$, $p<.01$), 이 때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31$, $p>.05$).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와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와 교제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

표 2. 파트너의 비난의 지각에서 지향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각자의 철회와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성의 지각			여성의 지각			성차
		추정치/계수	표준오차	t	추정치/계수	표준오차	t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상수	-.36	.04	-8.37***	-.29	.06	-5.01***	1.04
	파트너 비난(실제 변인)	.33	.05	6.61***	.40	.06	6.34***	.91
	지각자 비난(유사성편향 변인)	.41	.05	8.59***	.21	.07	3.24**	-2.42*
자신의 비난	상수	-.09	.07	-1.46	.09	.06	1.49	
	파트너의 비난	.33	.07	4.71***	.31	.07	4.71***	
	지각자 철회	-.30	.05	-6.25***	-.32	.06	-5.12***	-.24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교제기간	.24	.06	4.40***	.27	.07	3.72***	.31
	파트너 비난(실제 변인)	.02	.02	.98	.04	.03	1.50	.63
	파트너 비난*지각자 철회	.27	.05	5.33***	.38	.07	5.55***	1.30
	파트너 비난*지각자 철회	.03	.05	.59	-.10	.07	-1.43	-1.50
	파트너 비난*교제기간	.03	.03	1.26	-.01	.03	-.17	-.93
	지각자 비난(유사성편향 변인)	.32	.05	6.10***	.10	.07	1.35	-2.50*
	지각자 비난*지각자 철회	-.05	.05	-.99	-.01	.07	-1.10	.49
지각자 비난*교제기간	-.02	.02	-1.30	.04	.03	1.05	1.58	

주. N=197. * $p<.05$, ** $p<.01$, *** $p<.001$.

하였다(남지각: 추정치=.27, $t=5.33$, $p<.001$; 여지각: 추정치=.38, $t=5.55$, $p<.001$).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지각자가 남성인 경우는 여전히 유의했고(추정치=.32, $t=6.10$, $p<.001$), 지각자가 여성인 경우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추정치=.10, $t=1.35$, $p>.05$),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2.50$, $p<.05$).

다음으로,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3의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남성의 지향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고(추정치=-.09, $t=-1.48$, $p>.05$), 여성의 지향성 편향은 유의하였다(추정치=-.13,

$t=-2.06$, $p<.05$).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남지각: 추정치=.46, $t=6.29$, $p<.001$; 여지각: 추정치=.49, $t=7.33$,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32$, $p>.05$).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이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도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남지각: 추정치=.43, $t=5.95$, $p<.001$; 여지각: 추정치=.19, $t=2.78$, $p<.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각의 유사성 편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2.45$, $p<.05$).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남성의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유

표 3. 파트너의 철회의 지각에서 지향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각자의 비난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성의 지각			여성의 지각			성차
		추정치/계수	표준오차	t	추정치/계수	표준오차	t	
지각된 파트너의 철회	상수	-.09	.07	-1.48	-.13	.09	-2.06*	-.30
	파트너 철회(실제 변인)	.46	.07	6.29***	.49	.07	7.33***	.32
	지각자 철회(유사성편향 변인)	.43	.07	5.95***	.19	.07	2.78**	-2.45*
자신의 철회	상수	-.20	.06	-3.24**	.20	.06	3.20**	
	파트너 철회	.03	.07	.46	.03	.07	.46	
	상수	-.05	.06	-.88	-.15	.06	-2.39*	-1.15
지각자 비난 교제기간	지각자 비난	.45	.07	6.73***	.41	.07	6.10***	-.37
	교제기간	.03	.03	.98	.09	.03	3.12**	1.45
	파트너 철회(실제 변인)	.26	.06	4.14***	.31	.07	4.74***	.60
파트너의 철회	파트너 철회*지각자 비난	.22	.06	3.65***	.02	.07	.27	-2.24*
	파트너 철회*교제기간	-.03	.03	.32	.05	.03	1.68	1.93
	지각자 철회(유사성편향 변인)	.21	.07	3.18**	.00	.07	.00	-2.21*
	지각자 철회*지각자의 비난	-.12	.02	-2.02*	-.04	.07	-.59	.92
지각자 철회*교제기간	-.04	.03	-1.24	-.01	.03	-.21	.74	

주. N=197. * $p<.05$, ** $p<.01$, *** $p<.001$.

의하지 않았고(매개효과=.01, Sobel's $z=.42$, $p=.67$),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여성의 간접 지각의 정확성도 유의하지 않았다(매개효과=.01, Sobel's $z=.42$, $p=.68$).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향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과 교체기간의 조절효과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 철회의 지각에서 나타나는 긍정 편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남지각: 추정치=.45, $t=6.73$, $p<.001$; 여지각: 추정치=.41, $t=6.10$,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37$, $p>.05$). 교체 기간은 남성이 여성의 철회를 지각할 때의 지향성 편향을 조절하지는 못했지만(추정치=.03, $t=.98$, $p>.05$), 여성은 남성의 철회를 지각할 때의 긍정 편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정치=.09, $t=3.12$, $p<.01$).

파트너의 철회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는 지각하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에만 유의하였고(추정치=.22, $t=3.65$, $p<.001$), 지각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며(추정치=.02, $t=.27$, $p>.05$), 성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24$, $p<.05$).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에서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b=.04$, $t=.47$, $p=.64$),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47$, $t=5.80$, $p<.001$).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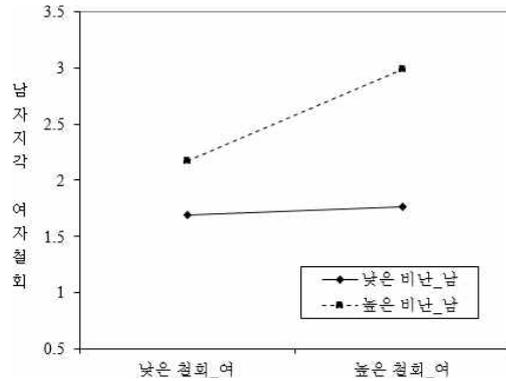


그림 1.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에서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의 조절효과도 지각하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에만 유의하였고(추정치=-.12, $t=-2.02$, $p<.05$),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에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b=.33$, $t=3.63$, $p<.001$),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9$, $t=1.01$, $p=.32$). 교체기간은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유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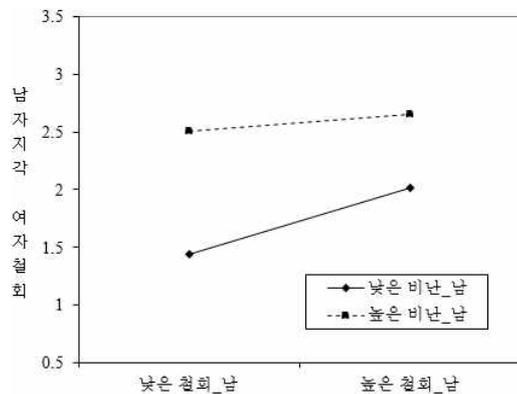


그림 2.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조절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 얼마나 긍정 편향 혹은 부정 편향되어 지각하는지, 또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얼마나 편향되어 지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들 관계에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철회,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와 성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설과 관련된 논의에 앞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의 측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묶어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 사람이 비난하면 다른 한 사람은 철회하는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과 일관되게, 한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과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 간에는 관련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남녀 각각의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 간에 관련이 있었고, 이는 한 개인 내에서도 비난과 철회의 두 가지 의사소통 양식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이 모두 높았다고 보고한 Caughlin과 Vagelisti (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성차에 대한 갈등구조관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커플은 비난을 하는 사

람과 철회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되는 문제에 따라서 비난하는 사람과 철회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Holly, 2010; McGinn, et al., 2009).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개인 내의 비난과 철회가 둘 다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비난과 여성의 비난 간에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커플 내에서는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 뿐만 아니라 비난-비난 의사소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의사소통 패턴임을 시사한다. 황민혜와 고재홍(2010)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비난 의사소통을 사용하면 다른 한 사람도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oller와 White(1990)은 Christensen과 Sullaway (1986)의 의사소통 질문지에서 추가적으로 상호 비난하고 위협하며 압력을 가하는 강압(coercision) 요인을 도출하고, 상호 비난 의사소통의 주요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한 방식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가설과 관련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1에서는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이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는 지지되었다. 즉, 자기보고 비난 및 철회가 각각 높을수록 파트너도 이를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 때 지각의 정확성에서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의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남녀에게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Hall(1984)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정확하게 지각하지만, 남성의 자기개방 수준이 낮아서 여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자기개방 등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를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를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트너의 자기보고 비난 및 철회와 이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은 .39에서 .52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Fletcher & Kerr, 2010; Siffert & Schwarz, 2010)의 결과와 유사하다. 나아가서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과 철회 및 교제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도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크기도 .26에서 .38로 여전히 유의하였다. 그러나 파트너의 비난과 철회에 대한 지각이 지각의 정확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산출하였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으로 인하여 파트너에 대한 지각이 부정확해 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파트너의 유사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Kenny & Acitelli, 2001; West & Kenny, 2011). 비난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이 모두 부정적인 의사소통 양식이기는 하지만, 비난 의사소통은 비난이나 변화의 요구 등으로 비난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반면, 철회 의사소통은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는 양식으로 철회하는 사람의 사고나 정서가 적게 드러난다. 즉, 파트너가 비난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는 지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되지만,

파트너가 철회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는 그럴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에서는 커플이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특질인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를 부정 편향하여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남녀 모두 긍정 편향하여 지각하였다. 여성이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에도 긍정 편향이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향성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커플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부정 편향하여 지각함으로써 생기는 이점보다는 긍정 편향하여 지각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 커플의 관계에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긍정 편향되게 지각할 때는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과 관계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부정 편향되게 지각할 때에는 관계에 더 몰입하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Swann 등(1994)은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를 정확하게 지각할 때 친밀감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관계가 불안정한 미혼 커플은 파트너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Murray와 Holmes (1997)도 미혼 커플의 경우 초기에 파트너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고 관계 만족감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파트너의 결점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파트너에 대한 환상을 가짐으로써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

한 긍정 편향의 경향이 미혼 커플에게서는 상호작용 특질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가설 3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투사하여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하고, 자신의 철회 의사소통을 투사하여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남녀 모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더 높았다. 이에 더하여, 지각자의 비난 및 철회를 각각 조절변인으로 포함했을 때,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은 파트너가 자신과 유사하게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타당화하고 파트너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는 한편으로는 사회화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비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사고 및 행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더 잘 구분해 내기 때문에 지각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은 과업 중심으로 사회화되므로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이해하는데 자기 자신의 유사한 의사소통을 준거로 사용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비난과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각자의 비난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 이는 가설 4의 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다.

가설 4에서는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

통은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을 조절하며,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은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우선,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 의사소통은 파트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보다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관계에 매달리고 요구적인 특성을 보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정경아, 김봉환, 2010; Trusty, Ng, & Watts, 2005). 남성도 여성과 유사하게 파트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만,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정경아, 김봉환, 2010).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난하려는 이유에서라도 남성이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향성 편향에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고,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다. 즉, 지각하는 사람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비난하고 요구하는 파트너의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 편향은 줄어들고, 지각하는 사람이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철회하는 파트너의 의사소통 양식에 대한 지각의 긍정 편향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난-철회의 의사소통 패턴에서 반대쪽에 있는 의사소통 양식도 파트너의 의사소통 양식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준거가 됨을 의미한다. 정서중심 커플치료에서는 A가 비난을 하면 B가 철회하고, B가 철회하면 A가 다시 비난을 하는 순환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데(Johnson, 2006), 이를 본 연구 결과와 통합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A가 B를 비난하면, B는 A의 비난을 A의 자기보고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면서 철회하고, 그 다음 A는 B의 철회 의사소통을 B의 자기보고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면서 B를 비난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파트너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비난-철회의 의사소통 패턴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의 철회를 지각할 때 남성의 철회가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의 비난의 조절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에는 남성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성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파트너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 정도에 상관없이 남성은 여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에도 남성의 비난이 남성의 철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Siffer와 Schwarz(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요구/비

난 의사소통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구/비난 의사소통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한 반면 철회 의사소통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가설 5에서는 교체기간이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대부분 지지되지 않았다. 교체기간은 비난 및 철회의 지각의 정확성이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는 Fletcher와 Kerr(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파트너를 오래 동안 알게 되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때, 지각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지각의 유사성 유사성은 편향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Decuyper, et al., 2012; Letzring, et al., 2006)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철회에 대한 여성의 지각의 지향성 편향에서만 교체기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교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이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보이는 긍정 편향이 부정 편향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열정적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만, 교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이 남성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관계 중심적인 여성은 관계의 초기에도 관계 유지를 위한 관심이 높고, 초기에 긍정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 Gagné와 Lydon(2003)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에서 예측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의 지향성 부정 편향이 교체기간을 고려하면 일부 지지됨을 보여준다. 즉, 교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 대한 안정감과 관여 정도

가 높기 때문에 철회의 지각에서 지향성 부정 편향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더 민감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지각에서만 나타났는데,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여성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파트너의 자기보고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letcher & Kerr, 2010). 한편, 교제기간의 조절효과가 철회의 지향성 편향에서만 나타나고 비난의 지향성 편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관계 만족에서 비난 의사소통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교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관계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이 커지는 정도가 비난 의사소통을 부정 편향되게 지각함으로써 관계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6에서는 성별이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앞에서도 성차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유의한 성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파트너의 비난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여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보다 더 높았다. 또한, 파트너의 철회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도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여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파트너의 철회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편향에서 지각자의 비난의 조절효과도 남성이 파트너를 지각할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지각하려고 하지만 남성이 관계나 파트너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남성이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양식을 준거로 파트너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 수 있다. 사회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남성은 과업 중심으로 여성은 관계 중심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구조 이론의 관점을 따르면, 사회적 권력이 약한 여성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나 파트너에 대한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며, 권력을 가진 남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Caughlin & Scott, 2010).

연구의 의의 및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플의 상호작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자기보고와 파트너에 대한 지각을 구분하여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혼 커플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로 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일부 발견하였다. 이는 미혼 커플의 의사소통의 지각은 관여 정도

가 안정적인 부부와는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성차와 교제기간의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파트너의 지각에서의 성차와 교제기간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가 이를 명료화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커플 상담의 실제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정확하게 지각하였다. 파트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는 커플 상담에서 커플의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대입하여 이해함으로써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이 간접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 상담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유사한 의사소통을 사용한 경험을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긍정 편향되게 지각하였는데,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경우는 긍정 편향의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와 같은 의사소통의 강도를 긍정 편향되게 지각할 때, 상담자는 각 커플의 교제기간과 함께 긍정 편향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의 결점을 무시하고 긍정 편향을 보이는 커플의 경우, 교제 초기인지 혹은 교제 기간이 긴 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의 초기라면 이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친밀

감과 확신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제기간이 길어서 관여 정도가 안정적인 경우라면,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현재의 관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성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자신의 유사한 의사소통 양식이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은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파트너를 지각함으로써 이해받겠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나는 의사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남녀 모두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트너가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트너가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경우의 파트너에 대한 지각도 실제 의사소통과는 다를 수 있다. 커플 상담에서는 파트너의 의사소통에 대해 지각하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각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파트너가 자신의 실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확인해 주거나 상담자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편향되게 지각된 의사소통과 실제 의사소통을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나아가서 비난-철회의 부정적 의사소통 고리를 약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설문 대상자는 임의표집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연구자의 직장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임의표집 방식은 커플 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현미나, 채규만, 2012; 황민혜, 고재홍, 2010).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자의 의도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답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지되는지 후속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은 커플 중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파트너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응답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갈등 상황에 있거나 장거리 연애 중인 커플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 표집과 관련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미혼 커플은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가 불확실하므로 연구 결과를 부부에게 적용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정 편향은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고 교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긍정 편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커플과 부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과 부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불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커플 상담에 적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Schrodt 등(2014)이 메타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이 커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집단에 비해서 불화집단이나 임상집단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 상담을 신청한 커플 등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상담 실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커플의 의사소통 중에서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비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기술한 선행연구는 요구 및 비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 연구의 결과도 이들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러나 요구 의사소통과 비난 의사소통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요구 의사소통은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요구하는 것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비난은 파트너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김미정, 조영주, 2017; Gottman & Silver, 2002). 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요구 의사소통과 비난 의사소통을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윤아, 김득성 (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6(6), 101-113.
-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

- 리학회지: 여성, 22(2), 89-114.
- 김민선, 신희천 (2011). 언어적 억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35-49.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이희운, 조유현 (2015). 부부의 관계신념지각,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만족,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4), 62-88.
- 장문선, 김영환 (2002). 부부의사소통 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31-347.
- 장문선, 김영환 (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 의사소통 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99-414.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조영주 (2017).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프로파일 수준 및 형태 유사성이 미혼 커플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1), 23-44.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황민혜, 고재홍 (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이, 오해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79-800.
- Baucom, B. R., Atkins, D. C., Eldridge, K., McFarland, P., Sevier, M., & Christensen, A. (2011). The language of demand/withdraw: Verbal and vocal expression in dyadic inter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 570-580.
- Caughlin, J. P., & Scott, A. M. (2010).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inter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W. Smith & S. R. Wilson (Eds.), *New direction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search* (pp. 180-200). Los Angeles, CA: Sage.
- Caughlin, J. P., & Vangelisti, A. L. (1999). Desire for change in one's partner as a predictor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66, 66-89.
- Christensen, A. (1987). Detection of conflict patterns in couples. In K. Hahlweg & M. J. Goldstein (Eds.),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s: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pp. 250-265). New York: Family Process Press.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31-52). Philadelphia:

-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hristensen, A., Eldridge, K., Catta-Preta, A. B., Lim, V. R., & Samtagata, R. (2006).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29-1044.
- David, P. (2015). Wedding the Gottman and Johnson Approaches into an Integrated Model of Couple Therapy.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3(4), 336-345.
- Decuyper, M., De Bolle, M., & De Fruyt, F. (2012). Personality similarity, perceptual accur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9, 128-145.
- Eldridge, K. A., & Christensen, A. (2002).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during couple conflict: A review and analysis. In P. Noller & J. A. Feeney (Eds.), *Understanding marriage: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couple interaction* (pp. 289-32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tcher, G. J. O., & Kerr, P. S. G. (2010). Through the eyes of love: Reality and illu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6, 627-658.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Gagné, F. M., & Lydon, J. E. (2003). Identification and the commitment shift: Accounting for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illu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907-919.
- Gottman, J. M., & Levinson, R. 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182-200). Clevedon, UK: Multilingual Masters.
- Gottman, J. M., & Silver, N.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원전은 1999에 출판)
- Hall, J. A. (1984). *Nonverbal sex differences: Communication accuracy and expressive styl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olley, S. R., Sturm, V. E., & Levenson, R. W. (2010). Exploring the basis for gender differences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Journal of Homosexuality*, 57, 666-684.
- Humbad, M. N., Donnellan, M. B., Klump, K. L., & Burt, S. A. (2011). Development of the Brief Romantic Relationship Interaction Coding Scheme (BRRIC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 25, 759-769.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Brunner/ Mazel.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linetob, N. A., & Smith, D. A. (1996).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in marital interaction: Tests of interspousal contingency and gender role hypothe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45-958.
- Letzring, T. D., Well, S. M., & Funder, D. C. (2006). Information quantity and quality affect the realistic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111-123.
- McGinn, M. M., McFarland, P. T., & Christensen, A. (200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demand/withdra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749-757
- Murray, S. L., & Holmes, J. G. (1997). A leap of faith?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586-604.
- Murray, S. L., Holmes, J. G., Bellavia, G., Griffin, D. W., & Dolderman, D. (2002). Kindred spirits? The benefits of egocentrism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563-581.
- Noller, P., & White, A. (1990). The validity of the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 478-482.
- Overall, N. C., Fletcher, G. J. O., & Kenny, D. A. (2012). When bias and insecurity promote accuracy: Mean-level bias and tracking accuracy in couples' conflict discu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42-655.
- Preacher, K. J., Curran, P. J., & Bauer, D. J.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 437-448.
- Schrodt, P., Witt, P. L., & Shimkowski, J. R. (2014). A meta-analytical review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interaction and its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relational, and communicative outcomes. *Communication Monographs, 81*(1), 28-58.
- Siffert, A., & Schwarz, B. (2010). Spouses' demand and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in relation to thei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2), 262-277.
- Swann, W. B., De La Ronde, C., & Hixon, J. G. (1994). Authenticity and positivity strivings in marriage and court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57-869.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s.). New York, NY: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Thomas, G., & Fletcher, G. J. O.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079-1094.
- Trusty, J., Ng, K.-M., & Watts, R. E. (2005). Model of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3(1), 66-77.
- Vogel, D. L., & Karney, B. R. (2002). Demands and withdrawal in newlyweds: Elaborating on the social structur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5), 685-701.
- West, T. V., & Kenny, D. A. (2011). The truth and bias model of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18(2), 357-37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7. 07. 15.
심사통과접수 : 2017. 09. 16.
최종원고접수 : 2017. 09. 22.

Criticism and Withdrawal Communication among Dating Couples: Perceptual Accuracy and Bias

Young-Ju Cho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erceptual accuracy, directional bias, and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and withdrawal communication among dating couples, applying Truth and Bias model (West & Kenny, 2011).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r's withdrawal (in perception of partner's criticism) and criticism (in perception of partner's withdrawal), gender, and dating length were tested. Data collected from 197 dating couples were analyzed adopting Multi-level Modeling. For the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SPSS Mixed Modeling program was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ual accuracy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and withdrawal were significant for both men and women. Second, regarding directional bias, there were positive biases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for both men and women while there was positive bias in women's perceiving partner's withdrawal and not in men's perception. Third,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and withdrawal were significant for both men and women, and women were higher in perceptual similarity bias than men. When perceiver's withdrawal and criticism and dating length were included as moderators respectively, perceptual similarity bias were still significant for men, but not for women. Fourth, men's criticism had moderating effects in men's perceptual accuracy and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partner's withdrawal. Fifth, dating length decreased the positive bias in women's perceiving partner's withdrawal, but did not moderate perceptual accuracy and perceptual similarity bi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included.

Key words : criticism, withdrawal, communication, perceptual accuracy, directional bias, perceptual similarity bias, Truth and Bias model, dating couples, sex difference, dating length